



여자배구, 카메룬 완파 월드컵 2승

국제배구 월드컵서 3-0 김연경·박정아 득점 폭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2019 국제 배구연맹(FIVB) 월드컵에서 카메룬을 제물로 2승째를 거뒀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카메룬과 5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3-0(25-21 25-18 25-18)으로 승리했다.

세계 랭킹 9위 한국은 이날 승리로 2승 3패가 됐다. 카메룬(세계 10위)은 5전 전패를 당했다.

한국은 전날 러시아와의 4차전에서 주포 김연경(타키 엑사시바시)과 이재영(흥국생명), 센터 양호진(현대건설)에게 휴식을 줬다.

오는 29일 11차전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에 대비해 주전들의 체력을 아낀 한국은 이날 한 수 아래의 카메룬을 맞아 정예 멤버를 풀가동해 필요한 승수를 쌓았다.

한국은 공격에서 범실이 쏟아진 1세트에서만 고전했을 뿐 2~3세트에서는 넉넉한 점수 차이로 카메룬을 따돌리고 낙승을 거뒀다.

한국은 김연경이 서브 에이스 2개, 블로킹 1개를 포함해 14점으로 최다 득점을 올렸고, 박정아(한국도로공사)와 이재영이 각각 11점, 9점을 거뒀다.

한국은 1세트에서 김연경, 이재영, 박정아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6-2 리드를 쟁겼다.

하지만 세트 이다영(현대건설)과 공격수들의 호흡이 조금씩 어긋나고 블로킹 벽이 연거푸 뚫리며 카메룬에 추격을 허용했다.

16-16 동점을 허용한 뒤 21-21까지 시소게임을 이어간 한국은 세트 교체로 돌파구를 찾았다.

교체 투입된 염혜선(KGC인삼공사)을 중심으로 패턴 플레이가 살아난 한국은 하혜진(한국도로공사), 이재영의 공격 포인트로 23-21을 만듦과 동시에 승리했다.

김연경은 서브 에이스로 24-21, 세트 포인트를 채우고 카메룬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1세트를 따낸 한국은 2세트부터 호흡을 맞췄다.

카메룬의 조직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계속해서 리드폭을 벌인 한국은 박정아의 서브 에이스로 17-13을 만들었다.

박정아의 날카로운 서브에 카메룬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한국은 김연경, 박은진(KGC인삼공사)을 앞세워 단숨에 22-13으로 달아나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 역시 한국이 지배했다.

라바리니 감독은 9-4에서 김연경을 벤치로 불러들인 데 이어 출전 기회가 적었던 젊은 선수들을 속속 기용했다.

한국은 하혜진의 과감한 공격과 카메룬의 연속 범실을 묶어 3세트를 25-18로 잡아내고 세 세트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19일 제주종합경기장 애양운동장에서 열린 '2019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 그라운드 골프 종목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성료... "스포츠로 활력"

어제 한라체육관서 열려 15종목에 3500여명 참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선도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9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19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라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모두 15종목이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어르신 및 가족, 동호인 3577명이 참가했다.

볼링 남자개인전에서는 진영수(실버블링연합) 어르신이 1위를 차지했으며, 김찬성(실버블링연합), 고석홍

(실버블링연합) 어르신이 각각 뒤를 이었다. 또한 여자개인전에서는 강정일(실버블링연합) 어르신이 1위에 올랐으며, 김영자(실버블링연합), 김춘열(실버블링연합) 어르신이 각각 2위와 3위를 수상했다.

테니스 복식 1부에서는 김승익·현진일 어르신팀이 1위를 기록했으며, 오평봉·정강주 어르신팀과 장수종·오창원 어르신팀이 각각 뒤를 이었다. 복식 2부 경기에서는 구남선·한석중 어르신팀이 1위를 차지했으며, 임성진·문종희 어르신팀과 김인호·현철용 어르신팀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치러진 노래자

랑은 1위 강민순(가시리경로당), 2위 김금순(나래시니어라인댄스) 3위 고민립(신촌서부경로당) 어르신이 각각 수상했다. 율놀이에서는 1위 범섬, 2위 수원경로당, 3위 남원2리경로당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개최사를 통해 "청정 자연을 벗삼아 일상에서 스포츠로 활력을 되찾으시는 어르신들의 열정이 제주를 '장수의 섬'으로 만들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100세 시대에 걸맞는 더욱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한국축구, AFC U-16 예선 10-0 대승

첫 경기 대만 상대 승리

한국이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U-16) 남자 챔피언십 예선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대

송경섭 감독이 이끄는 한국 15세 이하(U-15)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대회 예선 1차전에서 대만을 10-0으로 이겼다. 이규동이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장하민이 두 골을 터트리는 등 골 잔치를 벌였다.

김지수, 허동민, 김도현, 이동현, 김진열도 한 골씩 보탤었다.

2020 AFC U-16 챔피언십 예선은 서아시아 권역 25개 팀과 동아시아 권역 22개 팀 등 총 47개 팀을 11개 그룹으로 나눠 치른다. 우리나라는 대만, 미얀마, 태국과 함께 K조에 속했다.

대회 본선은 내년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선에는 예선에서 각 조 1위를 차지한 11개 팀에 조 2위 팀 중 상위 네 팀, 그리고 개최국 바레인이 출전한다.

예선 B조에 속한 바레인이 조 1위 또는 조 2위 팀 가운데 상위 네 팀 안에 들면 조 2위 팀 중 상위 5개 팀이 본선에 오른다.

한국 대표팀은 20일 미얀마와 예선 2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2019 제주국제마라톤

11월 10일(일) 조천운동장

알림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http://marathon.ihalla.com>

접수기간: 7월 15일(월) ~ 9월 27일(금)

대상자: 초등·중·고·대학생, 일반·아우토리언

'애플 마라톤' 무료 참가 (항공권, 숙박권 제공)

제주국제마라톤사무국: T. 064)750-2523

한국, 9월 FIFA 랭킹 37위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에서 37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FIFA가 19일(한국시간) 발표한 남자축구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1470점으로 37위에 자리했다. 7월 발표 때보다 랭킹포인트는 3점이 늘었으나 순위엔 변화가 없었다.

공동 38위에서 37위로 한 계단 오른 4월 이후 6월과 7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37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 중에서는 이란(23위), 일본(31위)에 이어 한국은 세 번째다.

연합뉴스

롯데 로이스터 전 감독 복귀 유력

새 사령탑 후보 공개



롯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시즌부터 팀을 이끌 차기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2주간 감독 후보를 선정한 뒤 심층 면접 및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7일에는 성민규 신임 단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성 단장은 미국에서 로이스터 전 감독을 비롯해 스콧 콜바, 래리 서튼 등 3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2008년부터 3년간 롯데를 이끈 로이스터 전 감독이다.

KBO 첫 번째 미국인 감독이었던

그는 '노 피어(No Fear)'를 외치며 화끈한 공격야구로 야구 도시 부산을 뜨겁게 만들었다.

연년 하위권 팀이었던 롯데를 3년 연속 포스트시즌으로 이끌면서 명예 부산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단기간 세밀한 경기 운용에서 약점을 드러냈다는 평가 속에 재계약에는 실패했다.

롯데 구단은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매우 죄송하다. 차기 감독 선임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수와 소통하고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팀 운영을 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TOUR **예약폭발** **마감임박!**

못말리는 제주직항전세기

화끈한! 필리핀 클락 3박 5일
푸닝온천/폭포/마닐라

10/24 **단하루**

- ★오프로드 트래킹, 온천
- ★팍팍한 급류타기, 폭포 관광
- ★모래찜질 체험 등

관광패키지 899,000원 ~
골프 54홀 1,250,000원 ~

꽃보다 청춘! 제주직항 3박 5일
라오스 비엔티안/방비엔

12/11 **단하루**

- ★전신맛사지 2시간
- ★바리어티 탕남동굴
- ★카약 래프팅 ★블루라군

관광패키지 999,000원 ~
골프 54홀 1,290,000원 ~

눈이 부시는 동양의 라스베가스, 마카오

제주직항 마카오 전세기

취향별로 선택하는 여행상품 Set

1. 주해/마카오 4일 799,000원 (월,수 출발)
★어온천포함 ★베네시안자유
2. 마카오/주해/심천 5일 899,000원 (금,일 출발)
★어온천포함 ★베네시안자유
3. 마카오/단하산 5일 950,000원 (금,일 출발)
한복의 수채화 "단하산"과 동양의 라스베가스 "마카오"를 한번에!
4. 마카오/주해 골프 5일 1,650,000원 (금,일 출발)

브루나이공화국 3박 5일

12/21 **꿈에 그리던 휴양지**
12/25 **7성급 호텔에서의 휴양!**

제주직항 1인 **1,590,000원**

▲ 전일정 7성급호텔 스위트룸 3박
▲ 노쇼핑 상품 ▲ 읍선2가지 포함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 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0/02 **전어석 20석, 12/28**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항 선착순 **899,000원**

★특식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신맛사지 1시간 (탕벨도), 베트남 전통노모자 증정, 스트리카 포함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식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황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